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쇼팽의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llante Op.22>
분석 및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이애리

쇼팽의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llante Op.22>

분석 및 연구

김경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이애리

인 준 서

이애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은 낭만주의 음악을 피아노로 가장 잘 표현한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낭만주의 정신에 조국 폴란드에 대한 정서를 담아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한 쇼팽은 자신의 섬세한 내면을 피아노 음악으로 표현하였고, 피아노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악기로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쇼팽은 스케르초, 에튀드, 즉흥곡 등 다양한 장르의 피아노곡을 작곡하였다. 존 필드(John Field, 1782-1837)의 피아노곡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녹턴은 쇼팽의 작품에서 그 서정성이 더 한층 고양되었고, 발라드는 쇼팽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피아노 곡에 사용하여 중요한 장르로 부각시켰으며, 폴로네이즈와 마주르카는 그의 애국적 정신이 예술로 승화된 작품이다.

쇼팽은 폴란드의 민족정신을 예술적 악곡으로 표현한 폴로네이즈를 총 16곡 작곡하였는데 그 중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llante Op.22>는 피아노 독주용인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관현악을 위한 <폴로네이즈>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두 부분 모두 피아노로 연주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오늘날 독주회용 악곡으로 많이 연주된다.

본 논문에서는 쇼팽 피아노음악의 전반적인 특징과 폴로네이즈의 역사와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고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를 분석하였다. 서정적이면서도 고요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의 안단테 스피아나토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지며, 화려하게 빛나는 선율과 박진감 넘치는 폴로네이즈 리듬의 폴로네이즈 역시 3부 형식이며 긴 종결부를 가지고 있다. 쇼팽은 서정적인 아름다움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폴로네이즈의 대비를 통하여 큰 연주 효과를 내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쇼팽의 피아노 음악	3
1. 쇼팽의 작품 활동 시기	3
2. 쇼팽 피아노 음악의 종류	5
3. 쇼팽음악의 일반적 특징	15
III. 쇼팽의 폴로네이즈	17
1. 폴로네이즈의 역사	17
2. 쇼팽의 폴로네이즈 작품들	20
3. 쇼팽 폴로네이즈의 음악적 특징	22
IV.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Op.22의 분석	27
1. 안단테 스피아나토 부분	29
2.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부분	35
V. 결론	52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9세기 초 피아노의 표현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피아노를 낭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로 부각시키는데 큰 몫을 한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은 섬세한 아름다움을 피아노 위에서 실현하여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피아노 음악에서의 독창성과 예술적 창조성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쇼팽은 낭만주의 음악을 피아노로 가장 잘 표현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낭만주의는 개인의 감정, 개성, 주관성을 중시하고 자유, 정열, 환상이나 이상을 향한 동경 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조이다. 음악에서 낭만주의는 181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베토벤의 음악을 논하는 글에서 처음 등장하였다.¹⁾ 낭만주의는 18세기말의 고전주의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고전주의와의 단절보다는 연장, 변모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낭만주의 등장의 배경으로는 1789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강조하는 만민평등의 권리가 주장 된 것과, 예술가들 역시 자유에 대한 이상과 개인주의적 사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음악에서도 역시 이러한 요소가 등장하기 것들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점들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낭만적이면서 상징적인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고전주의적인 형식적 명료함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고,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함으로써 고전적인 특징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²⁾ 이 시기에는 피아노의 발달로 악기의 표현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비루투오조 연주자들의 등장으로

1) 김문자 외,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심설당, 1993), p.517.

2)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나남출판, 1997), p.168.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연주자를 통한 새로운 표현에 대한 자극이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쇼팽의 음악에는 조국인 폴란드에 대한 그의 애국심과 민족적 성향이 반영되어 있고, 음악적으로는 세련되고도 열정적이며 정교하고 우아한 여성미도 지니고 있다. 낭만주의 정신에 조국에 대한 정서를 담아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낸 쇼팽은 자신의 섬세한 내면을 음악으로 표현하였고, 자신만의 독창성을 갖는 음악을 피아노로 표현하였으며,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풍부한 감수성을 잘 표현하였다.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llante Op. 22>는 1891년 빈에서 작곡된 폴로네이즈 부분과 1834년 파리에서 작곡된 안단테 스피아나토 부분으로 이루어진 곡으로, 6개의 주제를 반음계적 진행, 옥타브 진행, 당김음 기법, 화려하고 다양한 장식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변주시키고 있다. 이러한 화려한 장식적 요소들을 통해 쇼팽은 피아노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만의 화려하고 독창적이며 시적 감수성이 풍부한 작품을 창조해 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쇼팽의 작품 활동 시기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 알아보고 피아노 음악의 종류와 폴로네이즈의 역사, 작품, 음악적 특징 등을 조사한 다음 <안단테 스피아나토 그랜드 폴로네이즈 Op. 22> 를 6개의 주제 선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하여 쇼팽 피아노 음악의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II. 쇼팽의 피아노 음악

1. 쇼팽의 작품 활동 시기

쇼팽은 1810년 3월 1일 바르샤바 서쪽의 젤라조바 볼라(Zelazowa Wola)라는 마을에서 프랑스인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4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쇼팽은 6세부터 보헤미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아달베르트 지브니(Adalbert Zywny)에게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우게 된다. 쇼팽은 8세가 되던 1818년 바르샤바에서 성공적인 첫 데뷔를 하여 제 2의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라는 칭찬을 받는다. 또한 이 시기 쇼팽은 폴란드의 시골에서 폴란드의 민속음악을 접하게 되는데, 폴란드 민속선율과 리듬은 이후 그의 작품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쇼팽의 작품 활동 시기는 초기, 중기, 말기의 세 시기로 보통 구분되어진다. 그의 작품 활동 시기 중 초기(1825-1829)는 쇼팽이 고국 폴란드에서 음악 활동을 한 시기로 민속적, 정치적 사고가 과감히 음악에 반영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쇼팽은 폴란드의 마주르카, 폴로네이즈 등 전통적이고 민속적 춤곡에 사용된 리듬을 변형, 발전시켜 자기 음악에 포함시켰으며, 리듬, 화성, 음계에 이르기 까지 동유럽 음악의 특징을 바탕으로 작곡하였다. 이시기에 작곡된 곡으로는 폴로네이즈 네 곡이 포함 되는데 1827년에 작곡된 <Op. 71 No. 1 d minor>, 1828년에 작곡된 <No. 2 B b Major>, 1829년에 작곡된 <No. 3 f minor>, 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폴로네이즈 Op. 3, C Major> 등이 있다. 빈에서의 독주회가 성공하면서 쇼팽은 국외로의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1830년 바르샤바에서의 고별 연주 이후 폴란드를 떠나게 되는데, 이후 두 번 다시 조국 땅을 밟지 못한다.

그의 작품 활동 시기 중 중기(1830-1839)에 해당하는 1831년 9월 파리로 건너간 쇼팽은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 등과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 하이네 (Heinrich Heine, 1797-1856), 들라크로와 (Ferdinand Victor Eugene Delacroix, 1798-1863) 등과 같은 시인과 화가들 및 많은 지식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교계를 중심으로 연주와 작곡활동을 하며 그의 음악적 입지를 굳혀 나간다.³⁾

이 시기에 쇼팽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했으며, 그의 작품 에서는 피아노 음향의 새로운 시도를 위한 소스테누토 페달, 변박자와 당김음에 의한 다양한 리듬의 변화, 반음계, 빈번한 전조, 불협화음, 변화화음, 이명동음, 넓은 도약 선율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형식과 구조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1836년 쇼팽은 리스트의 소개로 프랑스 여류 작가인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1876)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쇼팽의 생애 중 가장 행복한 시기이고, 창작 면에서 전성기를 맞는다. 이 시기에 작곡된 곡으로는 1836-1839년에 작곡된 <전주곡 Op. 28 No. 1-No. 24번> 전체와 이 논문에서 분석할 1830-1831년에 작곡된<그랜드 폴로네이즈 E♭ Major, Op. 22> 1834년에 작곡된 Op. 22의 <안단테 스피아나토 Op. 22> 등이 있다.

쇼팽의 작품 활동 시기 중 말기(1840-1849)에는 초기와 중기의 작품 경향이 종합되어 독창적이고 한층 성숙한 음악으로 표현 되었으며, 복 리듬에 의한

3) 김혜자, 『피아노 음악』 (청우, 1985), p.232.

선율, 즉흥성이 강한 빠른 선율, 이중 트릴로 인해 곡들이 더욱 화려하고 환상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⁴⁾ 이 시기에 작곡된 중요한곡으로는 1841년의 <환상곡 Op. 49>와 1840-1841년에 작곡된 <발라드 Op. 47 A b Major>, 1842년에 작곡된<발라드 Op. 52 f minor>등이 있다.

조르주 상드와의 관계는 1946년 가을까지 9년 동안 계속되었고, 상드와 헤어진 이후 쇼팽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고 작곡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1849년 10월 17일 쇼팽은 파리의 방돔(vendome)에서 사망한다.

2. 쇼팽 피아노 음악의 종류

쇼팽의 피아노 음악이 가진 특징은 작품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낭만적이면서도 슬라브 민족이 지닌 특성의 하나인 극적인 모습을 내포하고 있고, 세련된 표현법과 견고하고 체계적인 악곡 구성과 그리고 조국 폴란드에 대한 애국심 등이 그의 음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쇼팽은 때로는 애수에 젖은 선율로, 또 때로는 화려하고 영롱한 음색으로 자신만의 낭만성 짙은 피아노 음악을 만들어 냈다.

낭만적인 음악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피아노를 중요한 악기로 취급하였던 쇼팽의 작품은 피아노가 아닌 다른 악기로 표현되기에는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넓은 음역에 펼쳐진 반주를 동반하는 단순한 선율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화려한 선율들은 대개 부드럽게 연결되는 레가토 양식으로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피아노에서 음을 지속시키는 페달이 발달한 덕분이다. 쇼팽은 장식적 효과음을 통하여 노래하는 듯한 선율을 표현하였고, 또한

4) 임해정. 『피아노 문헌개요』 (수문당, 1991), p.104.

음색을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연주하기 위해 페달과 레가토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물론 루바토 주법을 적절하게 구사하도록 연주에 자유를 주었으며 이는 쇼팽음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기존의 호모포니 짜임새에 왼손이나 다른 성부에 또 다른 선율의 흐름을 넣음으로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노래의 신비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쇼팽만의 서정성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기법이기도 하다.

쇼팽은 독주악기로서 피아노의 위치를 격상시켰고 소나타, 폴로네이즈, 마주르카, 변주곡, 론도, 녹턴, 협주곡, 왈츠, 발라드, 즉흥곡, 스케르쑈, 전주곡, 연습곡 등 다양한 장르의 피아노곡을 작곡하였다. 따라서 쇼팽은 낭만주의의 시대에 등장한 대부분의 피아노 음악을 창안하였다는 평가도 받는다.⁵⁾

1) 녹턴

쇼팽은 녹턴이라는 이름의 피아노소품을 처음으로 작곡한 영국의 존 필드(John Field, 1782-1837)의 작품에 감명 받아 자신의 녹턴을 만들었다. 그러나 쇼팽은 녹턴이라는 장르를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발전시켰고, 특유의 열정을 곡에 담고 있다. 쇼팽의 녹턴에서 나타나는 넓은 음역에 걸친 민감한 반주 음형, 그리고 피아노 장식음의 사용 등에서 독창적인 그의 상상력이 돋보인다.

쇼팽의 낭만성을 잘 표현한 아름다운 선율의 녹턴 19곡 중에서 1835년에 작곡된 <Op. 27, No. 2 D b Major>는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손꼽히고, 1841년에 작곡된 <Op. 48, No. 1 c minor>는 예외적으로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5) Donald J. Grout and Claude V.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 5th ed. (New York: W. W. Norton, 1996), p.639.

2) 왈츠

쇼팽의 왈츠는 실제의 무용음악을 고도로 양식화한 작품임과 동시에 왈츠의 형식을 빌린 서정적이고 우아한 그의 독자적 요소가 들어있는 작품이다. 왈츠는 쇼팽의 다른 피아노 음악 장르에 비해 연주하기에 그다지 난해하지 않고, 악상 또한 낯설지 않아서, 그의 작품 중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

쇼팽은 왈츠를 20곡 이상 작곡하였지만 쇼팽 생존에 출판된 것은 8곡(Op. 18, Op. 34 No. 1, 2, 3, Op. 42, Op. 64 No. 1, 2, 3)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그의 사후, 유작으로서 작품번호를 갖거나, 또는 작품번호 없이 발표된 것이 11곡이 더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쇼팽의 왈츠는 총 19곡이다.

쇼팽의 왈츠 중에는 그가 어릴 적 친구 마리아 브렌스키와의 짧은 사랑 이후 1835년에 작곡한 <Op. 69 No. 1 A b Major>가 있는데 이 곡은 마리아에게 헌정한 이별의 왈츠로 유명하다. 또 1833년에 작곡된 <화려한 대 왈츠 Op. 18 E b Major> 와 1831-1838년 동안 작곡된 <Op. 34 No. 1 A b Major>, <No. 2 a minor>, <화려한 왈츠 No. 3 F Major> 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

3) 즉흥곡

즉흥곡은 작곡자의 마음속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악상을 자유스러우면서도 정확한 피아노 기법으로 표현한 소품을 말한다. 낭만시대의 특징적 장르 가운데 하나인 즉흥곡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느낌을 가진 작품이며 쇼팽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상당히 표현이 자유로우면서도 논리적인 구성에 의한 하나의 명확한 형태를 가진 곡이다.

쇼팽은 1836년 조르주 상드와의 만남 이후 1837년부터 1842년 사이에 총 4곡의 즉흥곡을 작곡하였다. 1837년에는 <Op. 29 A b Major>, 1839년에는 <Op.

36 F# Major>, 1842년엔 <Op. 51 G b Major>, 그리고 1834년엔 유작으로 <즉흥환상곡 Op. 66 c# minor>이 있다.

허네커(James Huneker)⁶⁾는 “쇼팽의 즉흥곡은 즉흥의 자유로움을 모두 가지면서도 잘 정리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기에는 자유롭고 독특하지만 구성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했다.⁷⁾

4) 에튀드

쇼팽의 에튀드는, 손가락의 기교를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음악 속에는 노래가 살아있어야 하며 그 선율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만큼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는 절대음악의 정의를 역설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또한 이들 에튀드는 교육적으로나 연주에서나 상당한 가치를 지닌 작품들로 쇼팽 피아노음악의 핵심적 구성작품중 하나이다.

쇼팽의 거장성을 잘 나타내는 연습곡 에튀드는 모두 27곡으로, 1829-1832년에 작곡된 Op. 10은 <흑건 No. 5 G b Major>, <혁명 No. 12 c minor>등을 포함하여 모두 12곡으로 되어있고, 1832-1836년에 작곡된 Op. 25역시 <나비 No. 9 G b Major>, <겨울바람 No. 11 a minor>등이 포함된 총 12곡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1839년에 작곡된 3개의 연습곡이 더 있다.

연습곡이란 보통 연주 테크닉을 연마하기 위하여 작곡된 곡으로 알고 있고, 쇼팽의 곡들도 제각기 연주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멜로디, 하모니, 리듬, 그리고 감정 표현을 위한 연습곡이기도 하다. 이 곡들은 손가락 연습을 위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예술 음악으로 평가받는다.

6) James Huneker.(1857~1921) : 미국의 음악 비평가로 J. Brahms, J. Strauss, F. Chopin 의 작품을 편집 출간하였다.

7) 음악지우사,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6, 쇼팽』 (도서출판 음악세계, 2002), p.89.

5) 발라드

발라드는 쇼팽의 작품 활동 시기 중 가장 화려했던 중기에 작곡된 곡들로 쇼팽은 피아노곡에 처음으로 발라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쇼팽의 발라드는 서정과 독창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작품으로, 소나타나 론도와 같은 고전적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형식과 내용을 재창조하였다고 평가된다. 쇼팽은 폴란드 민족주의 시인이었던 미키예비치(Adam Mickiewicz)의 시를 읽고 받은 영감으로 발라드라는 작품을 구상했다고 알려져 있으며⁸⁾ 1831-1835년에 작곡된 <Op. 23 g minor>, 1836-1839년에 작곡된 <Op. 38 F Major>, 1840-1841년에 작곡된 <Op. 47 A b Major>, 1842년에 작곡된 <Op. 52 f minor> 이렇게 총 4곡의 발라드를 작곡했다. 이곡들은 낭만적 아름다움과 열정을 가진 몽상적이고 서사적인 작품들이며 구조적으로는 비교적 자유롭고 자연스럽다.

또한 이들 작품에서 쇼팽은 화성과 형식의 끊임없는 신선한 변화를 결합시켜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음악 속에서 추상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쇼팽 발라드에는 쇼팽의 자유로운 상상과 서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쇼팽 피아니즘의 내면적인 측면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곡이다.

6) 스케르초

원래 스케르초는 심포니, 소나타와 같은 큰 규모의 작품 중간에, 감정적으로나 기교적으로 잠시 가볍게 쉬어 갈 수 있는 악장으로 쓰였던 소규모의 성격을 가진 악곡이다. 쇼팽은 스케르초를 독립적인 악곡으로 만들어 감정의 변화와 기복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쇼팽의 음악적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독자적인 악곡 중 하나이다.

8) 김경임, 『피아노 음악』 (계명대학교출판부, 1970), p.279.

스케르초는 유머, 농담이라는 뜻을 내포하지만 쇼팽의 스케르초에서 농담을 느낄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는 우울함과 함께 개인적인 또는 민족적인 독립성이 엿보인다. 쇼팽은 전통적인 고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생동감 있는 사실적 에세이나 발라드와 같이, 내면의 소리를 진솔하고 아름답게 스케르초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발라드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음악재료를 통하여 가장 심각한 음악을 만들었으며 3박자인 점은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보통 4마디를 한 묶음으로 하여 마치 4박자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쇼팽의 스케르초는 1831-1832년에 작곡된 <Op. 20 b minor>, 1837년에 작곡된 <Op. 31 b b minor>, 1839년에 작곡된 <Op. 39 c# minor>, 1842년에 작곡된 <Op. 54 E Major> 이렇게 모두 4곡인데 이 4곡 모두 템포 프레스토인 점이 공통이다.

쇼팽의 스케르초는 선율의 아름다움이나 음악의 흐름은 발라드와 버금가게 빼어나지만 잦은 반복으로 인한 지루함이 느껴지기 쉽기 때문에 연주자가 반복되는 부분에 각기 다른 색채를 주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7) 폴로네이즈

폴로네이즈는 폴란드 귀족사회의 춤곡으로 쇼팽은 총 18개의 폴로네이즈를 작곡하였다. 마주르카에 비해 스케일이 크고 향토적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춤곡 폴로네이즈는 폴란드의 민요와 무용 음악에서 유래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장르는 폴란드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세에는 민속적인 성악곡 형태로서 대중 예식이나 축제, 결혼 축하연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폴란드적인 정서가 잘 나타나고 있는 악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쇼팽은 18곡의 폴로네이즈 중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곡(Op. 3)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곡(Op22)을 제외한 나머지 16곡은 모두 피아노독주를 위한 곡으로 작곡하였으며 이 중에는 1838년에 작곡된 <군대 폴로네이즈 Op. 40 No. 1 A Major>와 1845-1846년에 작곡된 <환상 폴로네이즈 Op. 61 A b Major> 등이 포함된다.

8) 마주르카

폴란드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춤곡인 마주르카는 폴란드의 민속적 리듬과 시적인 성격의 선율을 가진 예술적 피아노곡으로 쇼팽에 의해 재탄생되었다. 활력과 위트가 넘치는 쇼팽의 마주르카는 총 51곡이 작곡되었으며, 쇼팽은 마주르카의 양식적 특징을 보다 세분하여 마주르9), 쿠야비아쿠10), 오베레크11) 등으로 정리하였다. 쇼팽은 여러 가지 민속 춤곡의 요소를 자신의 피아노 어법과 융화 시키면서 민족정신을 표현한 독자적인 예술적 마주르카를 재창조하고 있다.

쇼팽이 일생동안 작곡한 마주르카 한곡 한곡에 담긴 그의 창의성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그는 소규모악곡 형태 안에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음악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곡에서는 리듬과 악센트의 미묘한 이동, 선율과 화성의 정교한 조화 등 참으로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마주르카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아주 풍부한 표현과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곡이지만 평균 2, 3분 정도의 짧은 소품들로 독립적으로 연주되기는 어렵다.

9) 마주르: 마조프셰 지방에서 17세기경부터 폭넓게 유행한 것이다. 생동감 있는 리듬에 맞춰 춤추기 때문에 악센트는 종종 둘째박이나 셋째박에나 놓인다.

10) 쿠야비아크: 쿠야비 지방의 음악으로, 느린 템포로 이루어지며, 악센트도 강하지 않고 테누토 같은 느낌으로 놓이는 것이 보통이다.

11) 오베레크: 빠르게 선회하듯이 추는 춤곡으로, 악센트는 종종 규칙적으로 둘째박 또는 셋째박에 놓인다.

폴로네이즈와 마주르카는 쇼팽의 애국적 정신이 예술로 승화된 작품이다. 즉, 쇼팽의 조국 사랑이 폴란드 민속음악 연구로 연결되었고, 쇼팽은 그것을 단순히 자료수집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언어를 통하여 잊혀져 가는 민족의 정서를 독창적인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이 두 장르는 바로 이러한 쇼팽의 노력 결과물이다.

9) 전주곡

쇼팽의 전주곡들은 각각 성격과 형식이 일정하지 않고, 단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성미를 보이며 잘 다듬어져 있는 소품으로, 조성이 각기 다른 24개의 악곡으로 이루어진 Op. 28이 대표작이다. 1836-1839사이에 작곡된 전주곡 <Op. 28 No. 1-24>은, C장조부터 d단조까지 24개의 각각 다른 조성으로 되어있으며 5도 순환배열로 모두 24곡이 배치되어 있다.¹²⁾ 그밖에 1841년에 작곡된 <Op. 45 c# minor>가 있다.

이 쇼팽의 전주곡은 하나의 짧은 악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많지만 악상이 단순하게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0) 소나타

쇼팽은 1828년에 <피아노 소나타 제 1번 Op. 4 c minor>, 1839년에 <제 2번 Op. 35 b b minor>(3악장 장송 행진곡은 1837년에 단독으로 작곡되었다),

12) 제1곡이 C장조, 제2곡이 그것의 병행 단조인 a단조, 제 3곡은 C장조보다 5도위인 G장조, 제4곡은 그것의 병행단조인 e단조로 되어있고, 그 다음도 이처럼 5도씩 위의 조성이 채용되어가는 방법을 말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C	a	G	c	D	b	A	f#	E	c#	B	g#	F#	e b	D b	b b	A b	f	E b	c	B b	g	F	d

1844년에 <제 3번 Op. 58 b minor>, 이렇게 총 3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다. 이중에서 제 1번 소나타는 3개의 작품 중 가장 고전적 형식으로 쓰였으나 그의 작품답지 않게 예술적 영감과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나타 제 2번은 로버트 슈만이 말하기를 “이 곡을 소나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받아드릴 수 없으며 그의 가장 무모한 4명의 아이들을 한 데 모아 놓았다”고 말했다.¹³⁾ 이것은 4개의 악장이 상호 연결성이 없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 조직적이며 유기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소나타의 규칙에서는 벗어나 있으면서도 이 소나타는 서정적이면서 독창적인 작품으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소나타 제 3번은 화성 수법이 더 복잡해졌고 전통 소나타 형식의 규범을 더 엄격히 지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규모가 더 웅대해졌다.

쇼팽 소나타의 공통점은 제 1악장은 모두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고 제 2악장은 3부 형식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쇼팽은 느린 악장을 2악장이 아닌 제 3악장에 배치하였고 제 2악장은 스케르쪼나 미뉴엣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 4악장 피날레는 Presto로 연주되는 것이 소나타 3곡의 공통점이다.

11) 협주곡

쇼팽은 모두 6개의 피아노협주곡을 작곡하였는데 이들 협주곡 중에는 작품연대와 그 순서가 뒤바뀌어 출판된 것이다. 현재의 <협주곡 제 1번 Op. 21 f minor>가 1829년에 작곡되어 1836년에 출판되었고, 그보다 작품번호가 빠른 <협주곡 제 2번 Op. 11 e minor>는 1830년에 작곡되어 1833년에 출판되었다. 이 협주곡들은 쇼팽의 청년 시절 고국 폴란드에서 창작된 것이어서 후년의

13) Milton Cross and David Ewen. *New Encyclopedia of Great Composer and Their Music* (Dovvleday Publications, 1969.), vol. 1. p.235.

성숙기 작품에서 보이는 내용의 깊이와 작곡 기법의 변화 및 완벽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청년기 특유의 깊이 있는 정서, 신선한 감각, 표현의 다양함과 현란함 등 후기의 작품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 엿보인다. 또한 기존의 형식적 범주 안에서도 쇼팽이 여전히 창의적인 사고를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의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발견해가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협주곡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은 너무 빈약하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¹⁴⁾

14) 음악지우사,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6, 쇼팽』 p.28.

3. 쇼팽음악의 일반적 특징

(1) 선율

쇼팽의 선율 구조는 반주가 딸린 멜로디이며, 그의 음악적 매력은 선율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키면서 화성변화, 전조, 리듬 변형과 같은 장식을 통해 발전시키고 무한한 음악적 가능성을 표현해내는 데 있다. 선율은 벨칸토 (bel canto)¹⁵⁾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벨리니(Vincenzo Bellini, 1801-1835)의 오페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쇼팽의 작품에서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의 피아노 작품에서는 매우 서정적이며 성악적인 하나의 선율적 아이디어가 화음과 조성의 변화, 리듬변주와 장식음 등에 의해 발전되어 여러 번 되풀이되면서 변화된다. 또한 쇼팽은 반음계적 선율진행을 빈번히 사용하였고, 필드의 영향을 받아 오른손의 서정적 선율 표현과 분산화음 반주로 이루어지는 왼손의 기법을 활용 하여 피아노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시켰다.

(2) 화성

쇼팽의 독특한 화성 구조는 다성선율이나 대위법적 진행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대를 앞서 나갔다. 그는 이명동음적 전조와 돌연 새로운 조성으로 옮겨가는 수법을 통해 자유롭게 전조를 하였으며, 많은 경과음과 비화성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불협화음의 사용으로 동시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으나, 이런 불협화음은 드뷔시(Achille Claude Debussy, 1862-1918) 이전에는 다시 접할 수 없었던 화성색채를 창출해 냈다. 그리고 화성 자체가 선율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빈번

15)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목소리, 완벽한 프레이징, 명확한 아티큘레이션 등의 전통적인 이태리 방식으로 노래 부르는 방법. 벨칸토 기술은 19세기 이태리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편. 『DICTIONARY of MUSIC』 p.48

했다.¹⁶⁾

(3) 템포 루바토(Tempo rubato)

쇼팽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템포 루바토인데, 이는 “잃어버린 시간”이란 뜻으로, 엄격한 템포를 연주자 임의로 조절하여 연주를 자유롭게 하는 불규칙한 템포를 말한다. 이것은 음악적인 긴장과 이완, 성장과 쇠퇴, 수축과 확장과도 같은 것으로서 음악적 표현 요구에 의해 가벼운 아첼란도 (accelerando)와 리타르단도(ritardando)를 오가는 탄력성 있고 유연한 템포이다.

쇼팽은 두 종류의 루바토를 사용하는데 선율적 루바토(melodic rubato)와 구성적 바토(structural rubato)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선율적 루바토의 경우 왼손 반주는 같은 속도(tempo)를 유지하면서 오른손 선율은 자유로이 표현적으로 속도를 변화시켜 하는 것으로, 양손이 독립적으로 연주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하며, 반면 구성적 루바토는 반주와 멜로디의 템포를 동시에 변화시켜 근본적인 박자구성이 일시적으로 뒤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낭만파 음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 페달 (Pedal)

쇼팽 음악의 또 다른 특징은 페달의 사용에 있는데, 그는 댐퍼 페달을 사용하여 선율 선을 지속시키고 자기 특유의 넓은 음역에 걸친 반주음형을 조화롭게 다루었다. 고전시대에는 대부분 화성의 바뀔에 따라 페달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는 이러한 법칙을 깨고 많은 비화성음 위에도 페달을 지속하여 신비한 분위기와 풍부한 울림을 만들었다. 댐퍼 페달은 소리를 차단하거나 공기

16) 김경임, 『피아노 음악』 p.267

중에서 진동하게끔 하는데, 쇼팽은 이 댐퍼 페달을 사용하여 자신의 서정적 음악의 선을 선을 지속시키고 자기 특유의 넓은 음역에 걸친 반주음형을 다루었다.

Ⅲ. 쇼팽의 폴로네이즈

1. 폴로네이즈의 역사

폴란드의 대표적인 민속 춤곡인 폴로네이즈는 원래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울려 있는 형태로서 박자감이 명확하고 비교적 단순한 선율로 되어있는 성악곡이었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1573년 프랑스의 앙리(Henri) 3세가 폴란드 왕위를 계승했을 때 폴란드 궁정에서 열린 제전에서 폴로네이즈를 추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⁷⁾ 폴로네이즈는 혼례, 축제 등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폴란드 각 지방에 따라 선율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 춤곡의 특징인 3박자의 리듬은 공통적이다.

민속적인 성악곡 형태의 폴로네이즈는 중세말기부터 예술적 기악곡으로 발전하였다. 초기단계에서는 하류계급에서 중류계급의 소유물로 그 격이 올라갔으나 단순한 가사를 지닌 짧은 성악곡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차츰 귀족 계급이 흥미를 가지기 시작함으로써 폴로네이즈의 가사가 훨씬 세련되어졌다. (예1)

17) Hugo Leichtentritt, 『음악의 형식』 대한음악 저작 연구회 역 (삼호 출판사, 1989), p.757.

[예 1] 초기의 폴로네이즈, 성악곡 <츄미엘>¹⁸⁾

Oj, chmie - lu, chmie - lu, ty buj - ne zie - le
 Nie be - dzie bez cie za dne we - se - le

Oj, chmie - lu oj nie - bo - ze chmie - lu nie - bo - ze
 To na dol. to na go - rze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폴로네이즈는 순수기악곡으로 변모하여 귀족사회의 무도회나 중요한 예식에 쓰이게 되었다. 또한 폴로네이즈는 의식용으로서 왕위에 오르거나 궁정의 축제 때 선정되고 정치적인 무도용으로서 외국의 왕이 방문했을 때 사용되었다.¹⁹⁾ 이것을 계기로 폴로네이즈는 폴란드의 국가적 민족적 군사적 정신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인식되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면서 폴로네이즈는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 아닌 양식화된 기악곡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제 무용음악으로서의 폴로네이즈와 양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서 이 음악이 유행되면서 3박자의 중간 속도로 행렬을 이루고 걸어가는 듯이 춤추는 음악으로 발달했으며, 특히 궁정에서는 당당한 리듬이 특징적인 기악용 폴로네이즈로 발전한다.

18세기 고전시대가 되면서 실제로 폴로네이즈라 칭하여 지는 기악 작품이 1772년 폴란드에서 나타났고, 고전적 폴로네이즈의 특징을 확고히 했다. 이 시

18) Stephen Downes. "Polonaise," *The New Grove Dictionary Music and Musicians*. 2nd ed. Edited by Stanley Sadie (Macmillan, 2001), Vol. 20, p. 49.

19) Hugo Leichterttritt, 『음악의 형식』, p.57.

대에는 폴로네이즈의 음악적 구성이 더욱 발전되어 선율에 있어서는 장식적인 대조선율로 바뀌었고 음역은 더욱 넓어졌다. 형식에 있어서도 론도형식이 폴로네이즈에서 사용되었고 협주곡이나 소나타 안에서 한 개의 악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1800년경부터 폴란드를 중심으로 수준 높은 폴로네이즈들이 작곡되고, 전 유럽에 확산되어 독립된 건반악기를 위한 소품으로 확립 되지만 관현악곡이나 오페라의 한 장면 혹은 무도회를 위한 음악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당당한 행진곡 풍의 무용음악 또는 기악곡으로 나타나는 폴로네이즈는 고전적 작품양식으로 인정되면서 폴란드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발전되었으며 장대하면서도 축제분위기를 지닌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음악은 항상 보통 빠르기의 3박자이며, 약박에서 중지하는 마침꼴의 프레이즈들로 구성되어 있고 짧게 반복되는 리듬 형을 가진다.

바로크 시대부터 양식화된 형태로 발전되어온 폴로네이즈는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음악의 여러 장르에서 이용되었으며 화성, 선율, 리듬, 형식, 관현악적 색채 면에서 전시대의 폴로네이즈 보다 훨씬 다양해지면서 보다 서정적인 음악으로 발전되었다. 쇼팽의 폴로네이즈는 민족성을 표현한 19세기 음악의 최초의 예이기도 하다.²⁰⁾

20) 홍세원, 『서양음악사』, p.483.

2. 쇼팽의 폴로네이즈 작품들

피아노 작품의 폴로네이즈는 쇼팽의 스승이었던 유제프 엘스너(Jozef Elsner)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고 고전시대부터 19세기 초에 걸쳐서 서구 여러 나라 작곡가들도 폴로네이즈를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베토벤의<폴로네이즈 Op. 89 C major>, 슈베르트의<열개의 폴로네이즈 Op. 61>, 베버의<그랜드 폴로네이즈 Op. 21>, 리스트의<두개의 폴로네이즈 S223 No. 1, 2>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 작곡가를 거치면서 화성, 선율 등의 형식이 변하게 되지만 관습화된 3박자 리듬과 이것에 근거해 선택된 선율의 리듬, 반복 등은 공통된 특징으로 남아있었다.

쇼팽은 조국 폴란드의 쇠퇴와 함께 점점 사라져 가던 폴로네이즈를 높은 예술적 경지까지 끌어 올려 폴란드 국민의 정치적 감정과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폴로네이즈 음악에는 그 시기에 따라 음악적 성숙과 기교에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는데 이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쇼팽의 피아노를 위한 폴로네이즈 작품들

분류	작품번호	작곡연대	조성
초기	.	1817	G minor
	.	1817	B b Major
	.	1821	A b Major
	.	1822	G # minor
	Op.71 NO.1	1825	D minor
	.	1826	B b minor
	Op.71 NO.2	1828	B b minor
	Op.71 NO.3	1828	F minor
.	1829	G b Major	

중기	Op.26 NO.1	1834-1835	C # minor
	Op.26 NO.2	1834-1835	E b
	Op.40 NO.1	1838	A Major
	Op.40 NO.2	1838	C minor
말기	Op.44	1340-1841	F # minor
	Op.53	1842	A b Major
	Op.61	1845-1846	A b Major

1817-1829년에 작곡된 초기 폴로네이즈는 쇼팽이 폴란드를 떠나기 전 소년시절에 작곡하여 후기 작품에서 보이는 당당함은 많이 없으나, 쇼팽 특유의 개성을 지닌 곡들이며, 중기 작품들 중 1834-1838년에 작곡된 <Op. 26의 No. 2>와 <Op. 40의 No. 1>은 군대 폴로네이즈라 불리울 만큼 화려함이 잘 나타나 있는 곡들로, 연주상 많은 기교를 요하며 1838년에 작곡된 <Op. 40의 No. 2번>은 당당하고 외향적인 작품이다. 또, 후기에 있는 세곡들 <Op. 44와 Op. 53>은 <영웅 폴로네이즈>, <Op. 61>은 <환상 폴로네이즈>라 불리울 만큼 애국적 감정이 강하게 표출 되었으며, 강약의 대비가 매우 크고 테크닉적으로도 어렵다.

이외에도 초기 작품인 1829년에 작곡된<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폴로네이즈 Op. 3 C Major>가 있으며 중기에 포함 되는 1830-1831년에 작곡된 <그랜드 폴로네이즈 E b Major Op. 22>가 있다. 또한 1834년에 작곡된 <안단테 스피아나토 E b Major Op. 22>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화려함이 잘 나타나며, 연주상 많은 기교를 요하는 곡이다. 이 곡은 <그랜드 폴로네이즈 Op. 22>와 짝을 이루어 한 작품으로 연주 된다. 이렇게 쇼팽의 폴로네이즈는 모두 18곡이며 이중에 피아노곡인 폴로네이즈는 16곡, 피아노곡이 아닌 폴로네이즈는 두 곡이다.

3. 쇼팽 폴로네이즈의 음악적 특징

1)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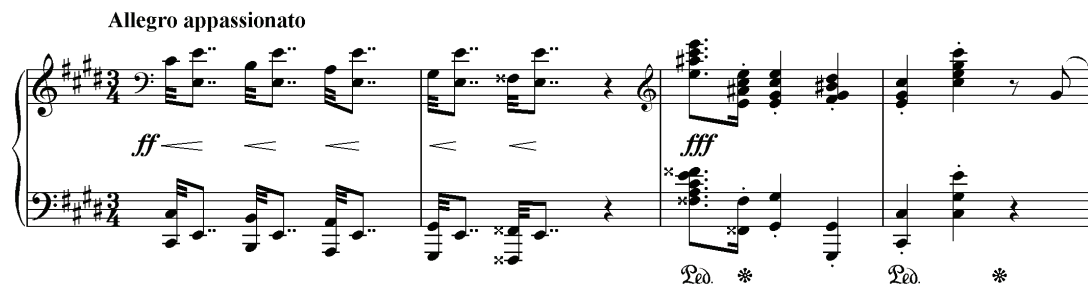
쇼팽의 폴로네이즈는 기본 리듬형을 모티브로 하여 자주 반복 사용하며, 이러한 기본 리듬 외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은 붓점, 셋잇단음표, 싱크페이션으로 곡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템포 루바토는 폴로네이즈 리듬을 한층 더 우아하게 만들어 주고, 왼손 반주로 나타나는 폴로네이즈 리듬과 화려하게 장식된 선율이 어우러져 당당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템포 루바토의 사용은 이러한 폴로네이즈의 리듬적인 묘미를 더해준다. (예 2, 3, 4)

[예 2] 폴로네이즈의 기본 리듬 형



[예 3] 폴로네이즈 Op. 26 No. 1 마디 1-4, 부점리듬

Allegro appassionato



[예 4] 폴로네이즈 Op. 44 마디 1-4, 셋잇단음리듬



2) 선율

쇼팽은 대부분 폴로네이즈 기본 리듬을 왼손 베이스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레가토로 연결함으로써 짧은 프레이즈 단위를 이루고 있다. 선율 선을 장식하기 위하여 사용된 트릴, 반음계, 옥타브는 곡의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셈여림 변화에 있어서도 갑작스런 악상의 변화도 더불어 *agitato*, *canto sostenuto* 등의 나타냄 말을 통한 분위기 변환 등은 곡 전체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표현상의 제시는 폴로네이즈의 당당함과 웅장함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된다. (예 5, 6, 7)

[예 5] 폴로네이즈 Op. 44 마디 18-20, 트릴



[예 6] 폴로네이즈 Op. 53 마디 5-7, 셈여림의 변화와 반음계 선율

[예 7] 폴로네이즈 Op. 44 마디 27-29, 옥타브 선율

3) 화성

폴로네이즈에서 나타나는 화성적 특징은 쇼팽의 피아노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같다. 그 중 폴로네이즈에서는 이명동음의 사용을 자주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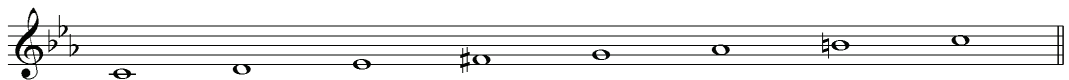
수 있는데, 이것은 전조를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화성적 색채의 변화를 유연하게 해준다.

또한 폴란드의 민속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색채감을 더하기 위해 폴란드의 민속음계 중에서 교회선법인 리디안 선법(Lydian scale)과 헝가리안 단조 스케일(Hungarian minor scale)을 사용하였는데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한 마디 안에서 다른 조성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복조성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러한 민속음계의 사용으로 쇼팽은 화성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예 8, 9)

[예 8] E \flat 리디안 선법 (Lydian scale)



[예 9] 헝가리안 c단조 스케일(Hungarian c minor scale)



4) 중지법

쇼팽의 폴로네이즈에 사용된 중지법을 살펴보면 초기작품에는 약박중지²¹⁾가 많으며 점차 중지에 변화를 주어 3번째 박에 해당하는 마지막 화음을 다음 마디의 강박에 오도록 하였다. 약박중지는 사라지는 듯한 여운을 폭발적이며 대담하게 바꾸어 끝맺음을 하기도 했다. 약박중지는 피아노(p)로 끝맺음을 하는 반면에 강박중지²²⁾는 포르테(f)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예 10, 11)

[예 10] 폴로네이즈 Op. 26 No. 2 마디 172-175, 약박중지

[예 11] 폴로네이즈 Op. 53 마디 178-181, 강박중지

21) 약박중지: 마침꼴 중에서 최후의 으뜸 3화음이 마디의 첫째 센박으로 끝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그 화성 구조상의 분류와는 관계가 없다.

22) 강박중지: 곡의 마지막 으뜸 3화음이 마디의 첫째 센박에서 끝나는 것이다.

IV. <안단테 스피아나토 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Op. 22> 연구 분석

쇼팽은 피아노 곡 으로는 총 16곡의 폴로네이즈를 작곡 하였는데 그 중 <안단테 스피아나토 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op.22>는 피아노 독주용 인 안단테 스피아나토(Andante spianato)와 관현악을 위한 폴로네이즈 (polonaise)로 구성되어 있으며 쇼팽의 6개의 협주곡 중 마지막 협주곡으로 구상 되었다. 관현악을 위한 폴로네이즈는 오케스트라 파트에 비해 피아노 파트의 비중이 커서 현재는 피아노 독주용으로만 연주되고 있으며 관현악이 없이 피아노만으로도 많은 기교와 화려함을 보여 준다.

쇼팽은 1830년 9월부터 폴로네이즈의 작곡을 시작하여 1831년 7월에 빈에서 완성하였고 안단테 스피아나토는 1834년에 작곡되었다. 그리고 1835년 4월 26일 파리에서 쇼팽이 콩세르바트와르의 관현악단과 폴로네이즈를 초연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 작품은 1836년 테스트 남작 부인에게 헌정 되었다.²³⁾

이 작품은 6개의 주제선율로 구성되며, 이 선율들은 여러 다이내믹과 화려한 장식음, 화성, 리듬 등의 변형을 통하여 변주되어 진다. (예 12)

[예 12] 6개의 주제선율

제 ① 주제 선율



23) 세광 출판사, 『최신 명곡해설 전집 16』 (세광출판사, 1983), pp.342-345.

제 ② 주제 선율



제 ③ 주제 선율



제 ④ 주제 선율



제 ⑤ 주제 선율



제 ⑥ 주제 선율



1) 안단테 스피아나토 부분

<안단테 스피아나토>부분은 전체적으로 왼손 아르페지오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무궁동 스타일로 되어있고 섹션별로 하나의 주제만으로 분위기를 통일시켜 작곡되어 있다. 형식은 크게 A B A'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세분해보면 A(a b a'(종결부)) B(c d c' d' c') A'(종결부+c)로 볼 수 있다. A'부분은 사실 A의 주제는 나오지 않고 끝부분만 똑같이 제시되기 때문에 A'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안단테를 통괄하는 아르페지오 음형이 다시 제시되므로 A의 재현 느낌이 확실하기 때문에 A'로 편의상 분류했다.

폴로네이즈에 선행한 안단테 스피아나토는 이탈리아어로 spianare는 ‘부드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서정적인 안단테 스피아나토 부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표 2] 안단테 스피아나토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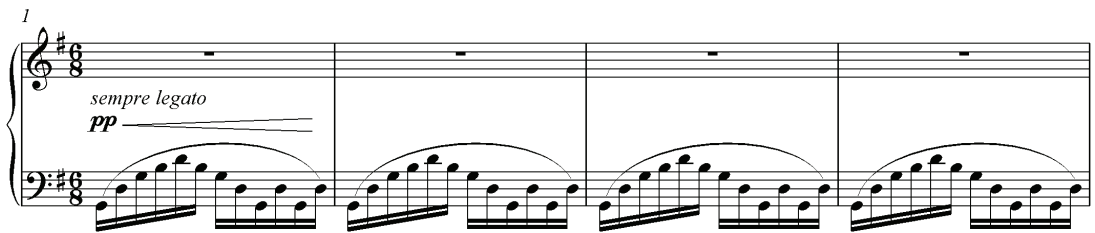
형식(마디수)		특징	박자
A(1-66)	서주(1-4)	도입부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르페지오 음형의 반복	6/8

	a(5-20)	5-12 Andante의 주제 악절		
		13-20 주제 악절 반복되며 멜로디만 장식		
	b(21-36)	21-24 네 마디의 악구로 길이가 줄어들면서 단조로 주제 선율 제시		
		25-28 동형진행을 통한 반복 e 단조 → d 단조		
		29-36 두 마디 단위로 반복되다가 마디 33부터 B 장조의 아르페지오 등장		
	a'(37-52)	37-44 주제 악절이 화려한 꾸밈음을 사용한 선율로 변주됨		
		45-52 주제 악절이 반복되며 선율이 2성부로 변주됨		
	코다(53-66)	53-56 양손이 같은 음형으로 연주됨		
		55-56 내성에서 주선율 등장		
		57-66 앞 악구의 반복 및 연장		
B(67-96)	c(67-72)	67-69 Choral 부분의 주제	3/4	
		70-72 주제의 반복		
	d(73-78)	73-75 주제와 같은 리듬이나 선율이 반 진행됨		
		76-78 동형진행 뒤 당김 리듬으로 변화		
	c'(79-84)	c가 셋잇단 리듬을 사용하며 재현됨		
	d'(85-90)	d가 셋잇단 리듬을 사용하며 재현됨		
c'(91-96)	c'가 셋잇단 리듬을 사용하며 재현됨			
A'(97-114)	종결부 (97-110)	[A]의 종결부 재현	6/8	
	(111-114)	[B]의 주제 선율로 마무리	3/4	

(1) A부분 (마디1-66)

첫 번째 A 부분은 네 마디의 도입부로 시작한다. 도입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으뜸조의 아르페지오 음형이 첫마디에서 사용된 후 반복된다. (예 13)

[예 13] 안단테 스피아나토, 마디 1-4



이러한 끊임없는 왼손 16분 음표 아르페지오 음형의 반복은 주제선율이 변형되어 나오는 것에 대한 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마디의 도입부 다음에 나오는 A부분의 구조는 a-b-a'의 3부 구조를 보인다. 마디 5부터처음으로 a부분의 주제 선율이 나온다. 이 주제 선율은 마디 35에서 종결부가 시작되기 전까지 4번에 걸쳐 나오는데, 이 주제선율은 반복 될 때마다 장식음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더 화려해 진다. (예 14)

[예 14] 주제선율의 변형

① 주제 선율, 마디 5-8



② 주제 선율의 반복 및 변주, 마디 13-16



③ 주제 선율의 반복 및 변주, 마디 3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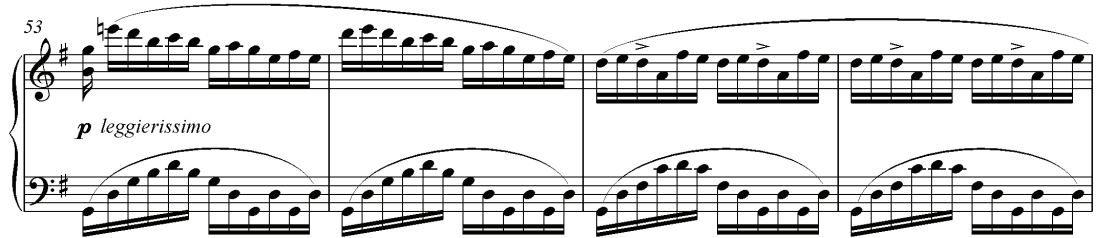


④ 주제 선율의 반복 및 변주, 마디 45-48



A부분의 종결부인 마디 53-56는 왼손 펼침 화음의 요소가 하행 동형진행의 형태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난다. 마디 97-110에서는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으로, d음을 주요 음으로 하여 주선율 없이 하행 진행 하고 있으며, 양손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16분 음표들이 이제 A부분을 마무리 해주고 있다. 연주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정호가한 소리를 가지고 편안하게 흐르는 듯이 연주해야 한다. (예 15)

[예 15] 안단테 스피아나토, 마디 53-56



(2) B부분 (마디6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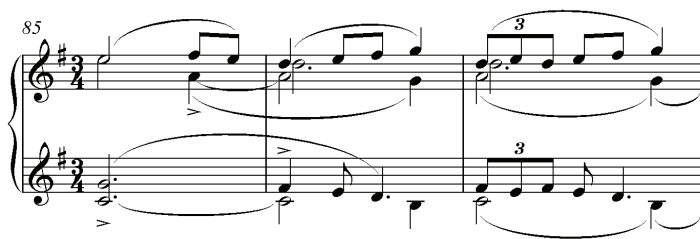
두 번째 B부분은 3/4박자로 변화되었고 A부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제 ②주제 선율이 세 마디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며, 두 마디의 선율에 한 마디는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형태로 구성 되어 있고, 첫 번째 마디에서는 첫 박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에서는 둘째 박에 액센트를 주면서 선율이 4박자→3박자→2박자로 축소되는 느낌을 준다. (예 16)

[예 16] 안단테 스피아나토, 마디 67-69



이 주제는 특히 리듬의 장식으로 변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연주 할 때에는 윗 성부를 노래하며 다른 성부들 도 생각하며 성부간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연주해야 한다. (예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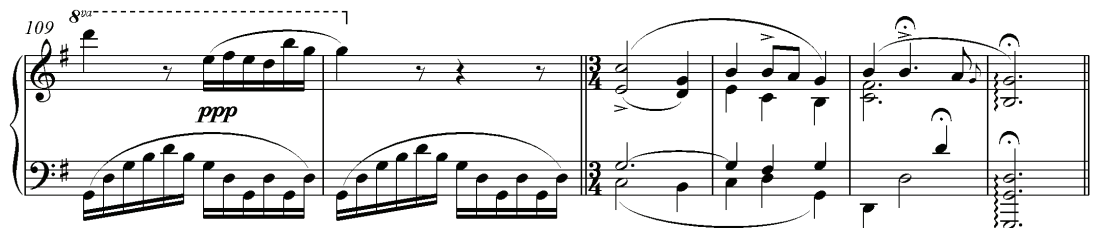
[예 17] 안단테 스피아나토, 마디 85-87



(3) A' 부분 (마디97-114)

A' 부분은 다시 A부분의 종결부가 반복되며, 마지막은 다시 3/4박자로 돌아오면서 B의 주제선율이 페르마타로 마무리된다. (예 18)

[예 18] 안단테 스피아나토, 마디 109-114



안단테 스피아나토 부분은 왼손의 잔잔한 아르페지오 반주위에 오른손 멜로디로 시작한다. 이 곡은 섹션별로 하나의 주제만으로 분위기를 통일 시켜 작곡되어 있으며 형식은 크게 A B A'로 볼 수 있다. A부분은 분위기를 암시하는 아르페지오 음형이 반복되어 나오고 주제선율이 반복 될 때마다 장식음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화려해 지고, B부분은 3/4박자로 변하여 A부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제선율이 4박자→3박자→2박자로 축소되는 느낌을 준다. A'부분은 A부분의 종결부가 반복되고 B주제 선율이 페르마타로 끝맺는다.

(2)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부분

폴로네이즈 부분은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같이 크게 A B A' 3부분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A' 이후에 긴 종결부가 이어진다. 박자는 3/4 박자가 유지된다. A가 재현될 때를 제외하고 각 파트 사이에 오케스트라의 총주(Tutti) 간주가 들어가 있으며 피아노 악보에도 총주 표시가 되어있어 자연스럽게 파트를 구분지어 준다. 전체적으로 반복에 의한 발전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폴로네이즈 리듬이 안 나오는 곳(연결구 등)은 셋잇단음표의 빠르고 화려한 피아니스틱한 기교와 짧은 부점 리듬 패시지의 생동감 있는 리듬이 곡을 이끌어간다.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표 3]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의 구조

구조(마디)		특징
A(1-76)	서주 (1-16)	Andante와 Polonaise의 연결구 역할
	주제부 (17-32)	17-20 네 마디의 주제 악구
		21-24 두 마디 동형진행을 바탕으로 좀 더 주제를 발전시킴
		25-28 주제선율에 폴로네이즈 리듬을 강조한 2마디 단위의 반복 구조
		29-32 주제부의 마무리 부분으로 주요 모티브인 부점 리듬이 처음 등장
	연결구 (33-54)	33-39 주제의 리듬적 특징을 가지고 변주
		40-46 네 마디 + 세 마디의 변주 형태
47-54 딸림 음이며, 주제를 준비한다.		
주제부 (55-74)	주제 재현이 좀 더 화려해지며, 16마디였던 주제부에 네 마디가 붙어 좀 더 확장 되면서 A부분 마무리됨	
간주 (75-76)	오케스트라 tutti 부분으로서 새로운 부분B가 나올 것을 암시하듯 피아노가 중지 못한 것을 대신해줌	
B(77-160)	연결구 (77-104)	77-84옥타브의 기교적 패시지로 짧은 카덴차 같이 등장
		85-92새로운 주제적 요소의 성격은 지나나 여기서만 단발 적으로 사용되기에 그냥 연결구의 일부분으로 봄.
		93-104 연결구 본래의 특징인 아르페지오와 반음계 스케일, 옥타브 패시지, 부점 리듬 등 다양한 피아니스틱한 효과 나타내줌.
부주제부	두 마디의 도입부를 거쳐 본격적인 새로운 주제가 등	

	(105-120)	장. 앞선 마디85의 주제적 요소와는 달리 C minor 단조 주제는 주제가 하나의 형식을 이룬다는 점에서 연결구에 포함 시킬 수 없고 B부분 의주도적인 왼손 리듬 ♩ ♩ ♩ ♩ 을 이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있기에 제 2주제로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
	연결구 (121-160)	121-132 부주제부의 꼬리에 붙어서 발전
		133-140 유사진행을 통한 발전
		141-148 앞 여덟 마디의 변주
		149-160 동형진행과 반복으로 이루어짐.
A'(161-220)	제1부의 반복 (161-220)	A가 그대로 반복됨.
종결부 (221-279)	종결부 I (221-260)	221-224 넓은 음역의 양손 반진행 아르페지오와 음형과 셋잇단음표의 빠른 패시지로 종결부의 화려함을 보여줌
		225-228 반복
		229-240 셋잇단음표의 계속된 움직임 가운데 네 마디단위의 반복패턴과 그 발전으로 이루어짐
		241-260 스무 마디의 코드를 다시 한 번 반복
	종결부 II (275-279)	261-268 계속되던 셋잇단음표에서 16분 음표로 변화를 주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반음계 코드의 상행 진행됨
		269-279 옥타브 하행 진행 후 양손 아르페지오로 으뜸화음인 Eb 코드를 화려하게 수놓으며 끝을 맺는다

(1) A부분 (마디1-76)

서주부분은 마디 1-16 오케스트라의 총주 부분으로, 피아노 독주에서 주제선율이 나오기 전에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폴로네이즈의 연결구 역할을 하는 화려한 전주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세 개의 악구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악구인 마디 1-4까지는 폴로네이즈의 리듬이 옥타브로 강조되는 도입부이며, 마디 5-8은 두 번째 악구로 3도 음정이 10도 음정으로 음역이 확대되어 진행된다. 세 번째 악구에서 오른손 화음이 상행하는 진행이 나타나며 마디 13 에서 최고높이에 도달한다. 마디 15-16은 폴로네이즈의 시작을 준비해주는 짧은 연결의 역할을 한다. (예 19)

[예 19]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1-14

Allegro molto (♩=126)
Tutti.

1 *f* *p* 3°

6 10° 3° 10° *p*

9 *cresc.* *ff*

12 *fz* *p riten.*

주제부에 해당하는 마디 17부터 32까지는 본격적인 폴로네이즈가 시작된다. 폴로네이즈 리듬을 반주로 하여 4마디 단위로 이루어진 제 ③주제선율이 나온다. 이 주제선율은 동형진행을 통해 발전되며 폴로네이즈 리듬이 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예 20)

[예 20]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17-20

연결구가 시작되는 마디 32부터는 제 ④주제선율이 폴로네이즈 리듬적 특징을 가지고 변형되어 나오고 있다. (예 21)

[예 21]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32-36

마디 47에서는 딸림음을 중으로 3:2의 리듬이 점점 상행하여 한 옥타브씩 올라가면서 3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액센트는 반 박자 뒤에 나온다.

(예 22)

[예 22]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47-50

The musical score for Example 22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47 to 50. The right hand (treble clef) plays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with accents, moving up an octave as indicated by the '8va' marking. The left hand (bass clef) plays a similar rhythmic pattern.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50 to 51. The right hand continues the eighth-note pattern with a 'decresc.' marking. The left hand plays a similar pattern.

마디 53부터는 변형된 주제 선율이 나오기 전에 높은 음역까지 사용하며 화려하게 주제 선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 23)

[예 23]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53-56

The musical score for Example 23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53 to 56. The right hand (treble clef) plays a melodic line with a forte 'f' dynamic, moving up an octave as indicated by the '8va' marking. The left hand (bass clef) plays a simple accompaniment of chords and single notes.

주제부의 재현이 시작되는 마디 55부터 제 ③주제 멜로디가 처음과 달리 많은 장식음과 꾸밈음이 첨가되어 나온다. 마디 57은 카덴자를 이용한 장식음을 사용함으로 이 주제가 앞서와는 달리 더욱 화려하고 기교적이며 풍성하게 들린다. (예 24)

[예 24]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55-62

55 *fz* *dolce* *pp dolciss.* 8^{va}-----7

58 6 3 3 5

61 *leggieriss.* 8^{va}-----7

또한, 마디 70부터는 오른손에서 붓점 리듬을 사용한 빠른 리듬 진행이 등장하며 마디 75부터는 오케스트라 총주가 B부분이 나올 것을 암시하듯 피아노의 종지를 대신해주며 A부분이 마무리된다. (예 25)

[예 25]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70-75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70-75 of the Grand Polonaise Brillante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70-74) shows a complex rhythmic pattern in the right hand with eighth notes and dotted rhythms, and a 'pizz.' (pizzicato) marking. The left hand features a steady accompaniment with 'Ped.' (pedal) markings and asterisks. A 'cresc.' (crescendo) marking is present in the right hand. The second system (measures 73-75) continues the pattern, with a 'Tutti' marking and a 'ff' (fortissimo) dynamic. The score concludes with a 'f' (forte) dynamic.

(2) B부분 (마디77-160)

B부분이 시작되는 마디 77부터는 기교적인 패시지로 역동적이며 화려한 양손의 이중 옥타브가 상행, 하행 하며 도약화음까지 나와 긴장감을 더해주고 B부분을 열어주는 팡파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연주할 때는 과감하게 전진하듯 상행하고 하행할 때는 호흡하며 내려오는 것을 느끼고 도약을 준비한다. (예 26)

[예 26]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77-80

마디 85부터는 제 ⑤주제선율로 다섯잇단음표와 여섯잇단음표를 이용하였고 연주할 때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연주해야 한다. (예 27)

[예 27]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85-88

부주제가 시작되는 마디 105부터는 여태까지의 분위기와는 달리 조성도 원주제 E♭ Major와 관계조인 C minor로 바뀌어 제 ⑥주제선율이 변형된 폴로네이즈 반주와 함께 나오다가 마디 111부터 다시 원래의 폴로네이즈 반주로 주제 선율이 나온다. 마디 115부터 이 선율을 반복하여 연주할 때에는 소프트 페달을 사용함으로써 음색을 바꿔주고 메아리치듯 더욱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로 여성스럽게 나타내야 한다. (예 28)

[예 28]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105-114

연결구에 해당되는 마디 130부터는 셋잇단음표에 액센트가 원래 형태대로 첫 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셋째, 둘째 순으로 두개씩 짝지어 진 것처럼 나타나 있고, 폴로네이즈 리듬 위에 페르마타가 붙은 긴 트릴이 쇼팽 특유의 반음계적 화성 색채가 잘 나타난 카덴자와 함께 나온다. 여기서 긴 트릴은 왼손의 폴로네이즈 리듬이 점점 안정되면서 오른손 카덴자와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드럽고 유연하게 연주하여야 한다. (예 29)

[예 29]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130-132

마디 133부터는 유사진행으로 발전하며 폴로네이즈 리듬을 반주로 통일성을 주고 f와 p로 대조되는 상행진행이 나온다. (예 30)

[예 30]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133-135

마디 153부터는 A' 부분이 나오기 전 앞부분(마디133-)과 같이 고난이도 테크닉으로 화려하게 오른손 32분음표의 상행과 왼손의 하행이 함께 이루어져 단계별로 점점 커진다. (예 31)

[예 31]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153-156

(3) A'부분 (마디161-220)

마디 161부터는 A' 부분이 장식음으로 시작된다. 이 장식음이 도입부의 부분을 대신하고, 장식음을 제외하면 A의 시작과 똑같으며 사실 A' 부분은 A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볼 수 있다. (예 32)

[예 32]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161-162

(4) 종결부 부분 (마디221-279)

종결부는 I, II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종결부 I 부분인 마디 221부터는 폴로네이즈의 화려한 종결부로 으뜸화음이 펼침 화음의 형태로 양손이 반진행하여 아르페지오로 한 옥타브씩 3번, 3옥타브에 걸쳐 반복 진행되며 극적인 긴장감을 더해줌에 음역의 확대를 보여준다. (예 33)

[예 33]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221-222

종결부Ⅱ의 마디 261부터는 극적인 부분으로 계속되던 셋잇단음표에서 양손이 같은 16분음표로 리듬이 변하여 반음계 진행으로 상행한다. 연주할 때에도 반음계 상행을 들으며 점점 크레센도가 되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며 끝을 향해 달는 느낌으로 연주한다. (예 34)

[예 34]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261-262

그리고, 마디 269부터 오른손은 셋잇단음표리듬, 왼손은 옥타브의 싱코페이션과 부점 리듬으로 양손이 같이 하행진행 한다. (예 35)

[예 35]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269-271

마디 276부터 이 곡의 끝까지는 4마디의 셋잇단음표의 양손 아르페지오가 곡의 으뜸화음인 E♭ Major로 점차적으로 상행 되어 화려하게 진행 되다가 처음 Tutti에 나왔던 변형된 폴로네이즈 리듬을 강조하며, 당당하고 웅장하게 E♭ Major로 끝난다. (예 36)

[예 36]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마디 276-279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는 앞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는 달리 당당하고 힘찬 폴로네이즈 리듬과 멜로디, 그리고 웅장함과 화려함 기교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반복에 의한 발전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폴로네이즈 리듬이 안 나오는 곳에는 셋잇단음표의 빠르고 화려한 기교와 짧은 부점리듬 패시지의 생동감 있는 리듬이 곡을 이끌어 간다.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역시 크게 A B A'로 나누어지는 3부분 형식이며 A'이후에 긴 종결부가 이어지고, 각 파트 사이에 오케스트라 총주 부분이 들어가 있어 자연스럽게 파트를 구분지어 준다. A부분은 폴로네이즈 리듬위에 주제선율이 나오고, B부분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관계조인 C minor로 바뀌어 변형된 폴로네이즈 반주와

함께 나오다가 원래의 폴로네이즈 반주로 주제선율이 나온다. 장식음으로 시작되는 A'부분은 A부분이 거의 그대로 재현 된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종결부 부분은 넓은 음형의 양손 반진행 아르페지오 음형과 셋잇단음표의 빠른 패시지가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폴로네이즈 리듬을 강조하여서 끝맺는다.

Ⅲ. 결론

낭만주의 음악은 개인의 감정, 사상, 개성을 자유롭고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대였다. 쇼팽의 피아노 음악은 낭만주의 음악적 특징과 가장 걸맞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아노라는 악기가 급속히 발달하는 덕분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진 것도 쇼팽의 피아노 음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폴란드의 민속 춤곡인 폴로네이즈는 쇼팽의 손을 거쳐 하나의 악곡 유형으로 완성 되었는데 쇼팽이 피아노를 위해 작곡한 16개의 폴로네이즈 중 폴란드의 고유한 민족성과 격렬하고 극적인 감정 표현이 잘 나타난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Op. 22>는 쇼팽의 작품 활동 시기 중 중기를 시작하는 작품으로 <안단테 스피아나토>는 피아노 독주용,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는 관현악을 위한 폴로네이즈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모두 6개의 주제 선율이 등장하며, 이 선율들은 여러 다이내믹과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음(턴, 트릴, 꾸밈음, 반음계, 아르페지오),화성, 리듬등의 변형을 통하여 반복, 변주되어진다.

서정적이면서도 고요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의 선율을 가지고 있는 안단테 스피아나토는 크게 A B A'로 나뉘지며, 화려하게 빛나는 선율과 왼손의 박진감 넘치는 폴로네이즈 리듬의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도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같이 3부분 형식 A B A'로 볼 수 있고 A' 이후에 비교적 길이가 긴 종결부가 이어진다.

쇼팽은 이와 같이 서정적인 아름다움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박진감 넘치는 화려함의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를 대비시킴으로 더욱더 큰 연주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곡은 단순한 춤음악 이었던 폴로네이즈를 쇼팽

이 중요한 음악형식으로 완성하여 예술적 경지로까지 승화시킨 것을 입증하는 예이며, 이러한 악곡의 특징에 관한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좋은 연주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경임. 『피아노 음악』. 계명대학교출판부, 1970.

김문자, 노영해, 박미경, 이석원, 허영한.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심설당, 2002.

김용환. 『서양음악사 19세기』.음악세계, 2007.

노정희, 이재선, 김재경, 정신자. 『서양음악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민은기, 신혜승, 전지호. 『서양음악의 이해』. 예술, 2000.

임해정. 『피아노 문헌개요』. 수문당, 1991.

홍세원. 『서양음악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나남출판, 1977.

<번역서>

Gillespie, John. 『피아노 음악』. 김경임 옮김,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Longyear, Rey M . 『19세기 낭만주의 음악』. 김혜선 옮김, 도서출판 다리,
2001.

<사전류>

사전편찬연구회, 『음악용어사전』. 세광출판사, 1991.

세광출판사 편집부, 『최신 명곡해설 전집』. 세광출판사, 1983.

음악 지우사,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6 쇼팽』. 음악세계, 2002.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편, 『DICTIONARY of MUSIC』. 음악세계,
2001.

Donald J. Grout and Claude V.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 5th ed.
W. W. Norton, 1996.

The New Grove Dictionary for Music and Musicians, Macmillan
Publishers Ltd, 2001.

Milton Cross and David Ewen. *New Encyclopedia of Great Composer and Their Music*. Doubleday Publications, 1969.

<학위논문>

김윤지. “쇼팽의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llante Op.22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서유림. “쇼팽의 Polonaise Op.53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우지안. “쇼팽의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llante Op.22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명숙. “쇼팽의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llante Op.22에 관한 연구: 6개의 주제 선율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9.

ABSTRACT

An Analysis of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llante Op.22* by Frederic Chopin.

Lee Ae Ri

The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 is a representative composer to express the romanticism music with piano. Incorporating the sensibilities of his mother land Poland into the spirit of romanticism to make his own unique music, Chopin expressed his delicate insight through his music and his own unique music with piano and played a critical role in making piano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musical instruments in romantic deriad.

Chopin composed various piano music including those titled 'scherzo', 'etude' and 'impromptu' etc. Chopin was deeply impressed by John Field's nocturne and composed his own Nocturne. Chopin was the first to name ballad to explore a new genre. Polonaise and mazurka are his music that sublimated his patriotism into an art.

Chopin composed total 16 polonaises that transformed his patriotism into artistic music, among which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ilante Op. 22* consists of *Andante spianato* for piano solo and *Polonaise*

for orchestral music. However, both of the two parts can be played with piano, which is frequently played for solo in recent years.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Chopin's piano music and the history and musical features of Polonaise; an analysis of *Andante spianato* and *Grand Polonaise brillante Op.22* is also provided.